

오대산 향기

2563 | 2019 7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五臺山了悟寺

우란분절(백중)기도

백중, 우란분절은 불법승 삼보에 대한 지극한 마음으로 조상과 부모에게 공덕을 쌓고, 불어의 가르침을 주시는 승가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는 불교에 전해 내려오는 큰명절입니다. 오대산 월정사에서는 49일 동안 지장천도 기도와 함께 7일마다 재를 올려서 여러 영가님들의 왕생극락을 발원하오니 여러 불자님들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선망부모형제와 인연 영가님들을 천도하시기 바랍니다.

“목련아!

음력 7월 15일은 모든 스님들이 여름 안거를 마치고,
自恣(자자)를 하는 날이라 즐겁게 한 곳에 모이니
너의 어머니를 천도하여 정토에 태어나게 하리라.”

 백중기도일	입 재 佛紀 2563(2019). 6. 28 (음 5. 26)
	1 재 佛紀 2563(2019). 7. 4 (음 6. 2)
	2 재 佛紀 2563(2019). 7. 11 (음 6. 9)
	3 재 佛紀 2563(2019). 7. 18 (음 6. 16)
	4 재 佛紀 2563(2019). 7. 25 (음 6. 23)
	5 재 佛紀 2563(2019). 8. 1 (음 7. 1)
	6 재 佛紀 2563(2019). 8. 8 (음 7. 8)
	회 향 佛紀 2563(2019). 8. 15 (음 7. 15)

 장소 **입재식·회향식** 적광전

 기도, 축원 **수광전** 오전 9시 30분(1재~6재)

 동참비용 **영가 1위당** 10,000원
축원 동참금 50,000원

* 백중설판 : 1,000,000원(각 재 상차림 1회) * 꽃, 과일, 떡 보시 받습니다.

칠월칠석기도	입 재 佛紀 2563(2019). 8. 1 (음 7. 1)
	회 향 佛紀 2563(2019). 8. 7 (음 7. 7)
	장 소 삼성각 동참금 50,000원

불기 2563년 7

Contents

- 02 주지 스님 법문
함께 하면 기도의 힘이 더 커집니다.
- 06 탄허스님 방산굴 법어
대중법어 大衆法語
- 있다고 보는 것은 중생의 망상심
- 10 오대산을 가다 ㉞
상원사 영산전 靈山殿과 청량선원 淸涼禪院
| 자현스님
- 15 오대산 구전동화
동심 童心으로 걸으렴
- 선재길 ① | 정진희
- 24 화엄오만진신 조성 불사 권선문
- 28 갤러리_월정사 읽기
탄허대종사 38주기 추모다례제,
기해년 하안거 포살
- 32 사중소식



표지사진 심검당 개회나무

발행일 불기2563(2019)년 6월 30일
발행인 퇴우 정념
주간 자현
편집 디자인 daboDESIGN
출력인쇄 (주)에드삼컴퍼니
발행처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문수성지 오대산 월정사
주소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전화 033-339-6800
팩스 033-332-6915
홈페이지 www.woljeongsa.org
등록번호 평창, 라 00004
*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월정사의 서면화된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좌번호. 농협, 313065-55-000014, 월정사 문의. 원주실, 033. 339. 6600~1

함께 하면 기도의 힘이 더 커집니다

퇴우 정님 스님

안녕하세요.

오대산은 오대에서 24시간 동안 염불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신행결사도량(信行結社道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오대에 전부 절사(寺)자가 아닌 결사할때의 사(社, 단체사)자를 썼습니다.

동대는 천수다라니(千手陀羅尼)를 독송하며 원통사(圓通社)라 했고,

남대는 지장경(地藏經)과 금강반야경(金剛般若經)을 독송하고, 금강사(金剛社)라 이름하며,

서대는 무량수여래를 수반으로 일만의 대세지보살을 그려 봉안하며 법화경(法華經)을 독송하고 수정사(水精社)라 하며,

북대는 석가여래를 수반으로 오백나한을 봉안하여 열반경(涅槃經)을 읽고 흰 연꽃, 백련사(白蓮社)라 이름하였으며,

중대 진여원은 화엄경(華嚴經)을 독송하고 화엄사(華嚴社)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대가 모두 결사의 도량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원력을 세워 용맹으로 기도 정진하는 것을 우리는 결사라고 합니다. 보조스님(知訥, 1158-1210)의 수선사 정혜결사(定慧結社)와 중국 동림사 여산 혜연 스님의 백련결사(白蓮結社)가 연원인 강진 백련사 요새스님(了世, 1163~1245)의 백년결사(白蓮結社)가 있는데 오대산 결사는 700년대 초에 이루

어졌으니 한국의 불교 신앙결사로서는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랑울사가 오대산을 개창하고 오대를 왕실에서 지원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결사도량이 된 것이죠.

오대 전체가 기도결사를 하면서 신라의 국운이 중창되고 문화르네상스가 일어났습니다. 성덕대왕은 통일신라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성군으로 오대산 신앙결사를 통하여 삼국통일 이후 분열되었던 민족의 화합을 이루고 국운을 중창할 수 있었습니다.

오대산은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한국최초의 성산이며 결사도량이었습니다. 성덕대왕이 형님인 보천태자와 함께 오대산에서 수행할 때 이곳이 얼마나 성스러운 곳인지 이미 알고 있었을때문입니다.

오늘 천등번개와 함께 비까지 내렸지만 공기가 맑고 청량하잖아요. 아침마다 전나무숲길을 포행 하는데 청량한 기운과 싱그러운 꽃향기가 그윽하니 이곳이 정말 별 세계고 어떻게 보면 극락세계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맑고 청량하며 수목이 아주 잘 자라는 곳이 오대산입니다. 오대산은 살아보니 생태계 복원도 금세 되고 생장의 기운이 아주 좋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오만 불보살님의 진신이 상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도량이요, 우리나라 최고의 명당이며, 부처님의 정골 사리를 모신 최초의 성산으로, 국가와 민족의 기원도량으로 삼아 내려 온 것입니다.

지금 하안거 결제 중으로 제가 삼칠일동안 북대 선원에 있다가 얼마 전에 내려와 지금은 만월선원에서 정진중입니다. 북대의 불사 마무리가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10여명의 대중이 결제에 들어갔으니 제가 가서 삼칠일동안 북대선원에서 정진하다가 내려왔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시니 제가 따로 터를 다질 이유도 그런 법력도 없지만 그래도 주지니까 함께 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오대산 북대, 상원사 청량선원, 월정사 만월선원, 지장암 기린선원까지 네 곳의 선원에서 스님들이 수행정진을 하고 계시고, 중대 사자암 적멸보궁과 상원사, 월정사에서는 매달 불자들이 철야용맹기도를 합니다. 또 7월 1일부터는 출가학교에서 한 달 동안 단기출가 프로그램이 있고, 명상마을에서는 재가불자들이 힐리와 명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연명상마을 건너편 박물관 앞마당에 연지를 만들어 올해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10월에 보살계와 더불어 문화축전을 하게 되는데 보살계 때 모두 오셔야 합니다. 올해 문화축전은 탑돌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불교하면 탑이 상징이잖아요. 또 탑돌이는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의례인데 탑돌이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 습니다. 국보 48호인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은 대표적인 석탑으로 탑의 원형입니다. 조계사, 쌍계사, 해인사, 봉녕사등 팔각구층석탑의 모양은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을 원형으로 만들어졌죠. 팔각구층석탑은 비례와 대칭이 조화롭고 아름다운데 도량의 중심을 잘 세우고 하늘과도 닿을 수 있는 당간과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월정사 탑돌이가 70년 초반에 민속경연대회에 나가 상도 탄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몇 년 동안 탑돌이 시연도 하고 세미나도 하면서 한국불교 최초로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찬불가를 많이 작곡한 작곡가 박범훈 선생과 함께 탑돌이를 공연문화로 승화시켜 불교콘텐츠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새로운 불교공연 문화로 탑돌이를 승화시켜 모두 함께하는 한마당 축제의 형태로 만들어 낼 텐데 굉장히 의미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수계식과 보살계 그리고 탑

돌이 공연으로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을 융합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 보는 겁니다. 여러 불자들이 함께 참여 하시고 다른 분들도 인연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산 월정사는 기도, 수행, 문화와 교육 등 세상에 회향할 부분들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정사 노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구 내 여러 복지재단과 문수청소년회를 통해 사회와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다양하게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월정사가 산중에 있지만 성산으로서의 오대산이 지닌 가치를 조명하는 동시에 오대산과 월정사를 찾은 불자들에게 배려를 해 드릴 수 있는 일들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종교도 쉽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오대산은 한걸음 발전해서 한국불교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도량이 되고 있잖아요.

힐링의 가장 최적지가 오대산입니다. 자연명상마을에서 명상으로 힐링하고 선재길을 걸으며 자연을 통해 힐링할 수 있고, 오대암자 곳곳에서 기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곳의 박물관과 문화재를 통해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라도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곳이 오대산인 것입니다.

이제 스님들이 열심히 수행하고, 월정사와 인연을 맺고 이 자리에 계신 불자님들도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오대산이 한국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도량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경전을 독송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여러 사람이 함께 하면 시너지가 생겨 기도의 힘이 더 커집니다. 다음 달에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大衆法語

있다고 보는 것은 중생의 망상심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그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인간을 제도하는 데 있다. 따라서 모든 종교의 시원始源도 이러한 인간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인간의 노력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다만 궁극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방법만이 각 종파와 종교에 따라 다를 뿐이다.

이러한 점은 불교도 마찬가지로서 인간의 절대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한 사람의 원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사문유관四門遊觀’이라는 용어는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또는 불교를 웬만큼 아는 사람이라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다.

인도 카필라성의 태자 싯다르타는 어느 봄날 궁중 밖을 구경 나갔다가 생로병사生老病死에 얽혀서 고통 받고 있는 생명을 보고 문득 인간의 생에 대한 의심이 솟구친 것이다. ‘대체 생生이란 어떤 것이며, 왜 저 사람은 못 고통을 받고 있는가? 또 저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인가?’

불교는 이와 같이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가 갖가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데서 시작된 것이다. 즉 이것이 불교의 중생제도라는 궁극

적인 목적이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생로병사이다. 모든 고통은 생生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생生이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고통이 뒤따른다. 이것은 생명을 갖고 있는 중생이라면 누구나 감수해야 하는 고통이다. 이 세상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늙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생로병사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생로병사가 ‘있다’고 보는 데서 기인한다. 생사가 있다고 인정할 때 거기에는 고통이 따른다. 특히 이러한 입장은 소승불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소승불교에서는 일체를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생사도 있고 고통도 있는 것으로 본다. 소승불교는 이러한 유有사상, 즉 고통·집集·멸滅·도道 사제법四諦法으로 그 기본을 삼는다.

따라서 소승불교에서는 고통을 보면 항상 싫어하라고 강조한다. 이것은 고통의 존재를 전제하는 이론이다. 그러므로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망상의 집착을 끊어야 하고 또 멸도滅道를 닦아 증득해야 한다.

여기에서의 고통은 자기의 육체로써 감지感知하는 지극히 소아적小我的인 고통이다. 그래서 소승불교에서 수도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고 또 자기만 제도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때의 제도가 참뜻의 제도일 수는 없지만 그들은 고가 있는 것은 육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여 자신의 육체를 떨어버리기에 모든 힘을 기울였다.

그들은 대개 고통을 여덟 가지로 나누고 있다. 그것은 생生·로老·병病·사死와 애별리고愛別離苦·원증회고怨憎會苦·구부득고求不得苦·오음성고五陰

盛苦이다. 생로병사도 큰 고통이지만 정든 사람끼리 헤어지는 것도 큰 고통이고 미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큰 고통이다. 그리고 원하는 바를 취하지 못하는 고통도 작은 고통이 아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고통은 오음五陰이 치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신적 육체적 욕망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괴로움이다. 이와 같은 못 고통을 중생이면 누구나 받아야 한다.

그래서 소승불교의 방편은 한 마디로 포고단집 망멸수도(柵苦斷集 望滅修道 : 괴로움이 두려워 괴로움의 원인을 끊고 적멸을 소망하여 도를 닦는다)라고 할 수 있다. '있다'고 보는 소승적 입장은 현상적인 것을 그대로 존재로써 긍정한다. 그 마음에는 생주이멸生住異滅이 엄연히 있고 육체의 생로병사가 여실하다. 춘하추동春夏秋冬의 시간이 존재하고 성주괴공成住壞空의 세계가 현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있다는 생각, 그 견해가 바로 고통의 원인인 줄을 모른다.

그러면 대승의 입장은 어떤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대승불교에서는 생사란 본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고통도 없고 고집멸도의 사제四諦도 없다. 생사가 없는데 어찌 고통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 이야기해 보자. 생사란 바다에 일어나는 물거품 같은 것이다. 중생은 바다를 보지 않고 물거품만 보고 생멸이 있다고 한다. 또한 중생의 나고 죽음은 금금이 기술자의 솜씨에 따라 가락지도 되고 목걸이도 되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가락지나 목걸이가 본래 있는 것이 아니잖는가?

그래서 대승불교는 공空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체는 공한 것이고 모든 존재는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고통을 벗어나는 길은 이 '없는 도리', '공한 이치'를 터득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중생은 망상에 집착하여 본래의 이치, 근본의 자리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에서 떠날 날이 없다. 죽는 날까지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다.

“마음을 반조하지 않으면 경을 보아도 이익이 없고, 바른 법을 믿지 않으면 고행해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心不反照 看經無益 不信正法 苦行無益).”는 말과 같이 공한 이치를 관조할 줄 모르면 아무리 경전을 많이 보고 오래 좌선을 해도 이익될 것이 없을 것이요, 부처님의 바른 법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수도한들 무엇에 쓸 것인가?

우리는 흔히 주위에서 자칭 도인입네 하는 이들을 자주 본다. “몇 해 동안 어느 고승 밑에서 경을 보았다느니” 또는 “어떤 선사의 선방에서 몇 년을 참선했다느니” 하면서 도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물론 그들의 도량깨친 세계를 딱 헤아리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들이 정말 그 오랜 세월의 공부로 생사가 없는 공한 자리를 보았는지는 자못 의심스럽다. 불교란 잘못 배우면 오히려 중생을 오도誤導하기 쉬운 것이다.

근본을 알지 못하고 마음을 관조하지 못하는 공부는 자신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지만 남에게도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한다. 우리 중생도 이와 같이 사견邪見과 망상에만 사로잡혀 본래의 이치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생사가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이다.

생사는 물거품이다.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생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것을 있다고 보는 것은 중생의 망상이다. 이 망상을 떨쳐 버려야 한다. 망상을 떨쳐 버릴 때 생사는 초월되고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그 경지가 바로 해탈이요 성불이다.

망상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못 고통의 바다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망상에서 벗어나기를 힘써야 한다.

상원사 영산전靈山殿과 청량선원淸涼禪院

자현 스님

① 영산전, 16나한을 말하다

영산전의 영산靈山이란, 인도 마가다국 왕사성에 위치해 있는 영취산靈鷲山(Gr̥dhraṅkūṭa)을 축약한 표현이다. 이 산은 석가모니부처님과 제자들이 수행하며, 설법하신 역사적인 성지이다. 특히 이 산의 정상에서 『화엄경』과 더불어 대승불교의 꽃으로 불리는 『법화경』이 설법되었다. 이런 점에서 석가모니 및 제자들과 관련해서 영취산은 가장 핵심적인 성지로 인식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산전이란, 석가모니와 그 제자들을 모신 전각이라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자들은, 석가모니의 여러 제자 그룹 중 16나한이 모셔진다. 석가모니에게는 10대 제자와 16나한 및 500나한 등 다수의 제자그룹들이 있었다. 이 중 석가모니와 16나한을 모신 곳이 바로 영산전인 것이다.

상원사의 영산전은 16나한상을 율기는 것과 관련해서 나옹스님의 전설이 상기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의 16나한상은 조선후기에 조성된 것이니, 당연히 고려 후기의 나옹스님과 관련이 없다. 그러나 나옹의 전설을 상기해 보기에 영산전은 더 없이 좋다. 특히 상원사의 문수전에 비해서 영산전은 언제나 넉넉하고 호젓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② 너무나 영험해서 파괴된 석탑

영산전 앞에는 처참하게 파괴된, 3층 석탑으로 추정되는 석탑이 한기서 있다. 비록 파괴되어 있으나, 탑 면에 조각된 불상의 부조를 보면 이 석탑이 매우 뛰어난 고려시대의 탑이라는 것을 알게 해 준다.

그런데 『삼국유사』 「문수사석탑기 五臺山文殊寺石塔記」를 보면, 이 석탑의 파괴와 관련된 듯한 기록이 쓰여 있어 흥미롭다. 내용인 즉은, 어떤 어부가 바다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석탑의 그림자가 계속 따라오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하였다. 그래서 화가 난 어부가 석탑의 그림자를 역으로 따라가, 도끼를 가지고 석탑을 파괴했다는 내용이다. 석탑의 생명을 구하는 영험함도, 결국 무지한 이를 제도하지는 못하는 듯하여 못내 슬프다. 이 기록에는 석탑이 신라시대의 탑이라고 되어 있지만, 양식으로 봤을 때 고려시대의 탑이 틀림없다.

석탑에는 붉은 점들이 매우 많은데, 이는 이 석탑을 구성하고 있는 화강암에 철성분이 많이 들어 있다가 녹슨 결과이다. 「문수사석탑기」에는 석탑을 이동해서 탑의 영험이 없어졌다는 내용도 있는데, 돌의 철성분과 관련된 어떤 신비한 측면이 존재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영산전 앞 석탑은 파괴되어도 아름다울 수 있는 명품의 자취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그리고 이 앞에서 보면, 청량선원과 오대산의 산세에서 오는 자취를 모두 담백 볼 수 있어 눈이 마냥 즐겁게 된다.

상원사의 앞마당에는 파괴된 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당당하면서도 우아한 기상을 내포한 5층석탑(오대보탑)이 새롭게 조성되어 있다. 이 5층석탑은 오대산의 오대를 상징해서 조성된 것으로, 현 주지인 인광스님이 2012년에 완성한 것이다. 이 외에도 상원사의 앞쪽에는 국보 제36호로 지정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통일신라시대의 범종인 상원사동종이 위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함께 둘러보면서 극품極品의 기상을 느껴

보는 것이 좋겠다.

③ 청량선원, 청량산을 품다

상원사가 문수보살의 성지라는 점에서, 이러한 지혜를 계승하고 깨달음을 이루려는 이들을 위한 청량선원이 존재한다. 청량선원은 현 월정사 주지인 정념스님이 상원사 주지를 지낼 때, 선수행을 위한 공간으로 2002년 개원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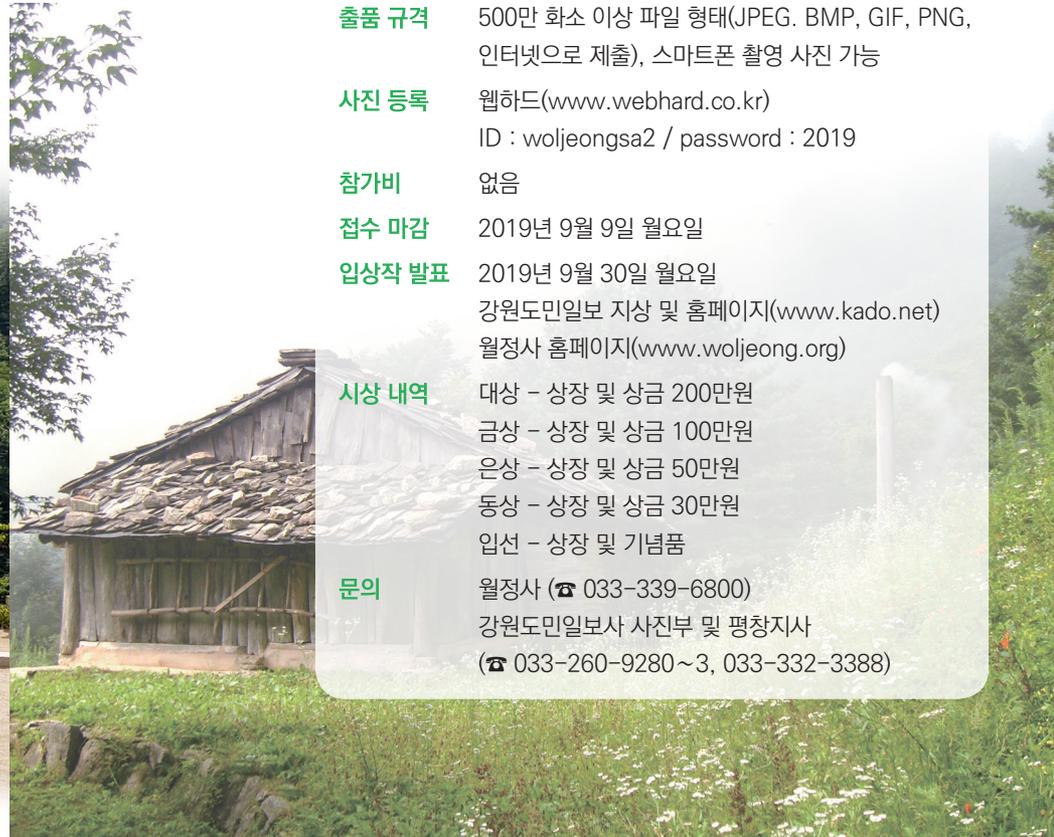
문수보살이 머무는 곳이 청량산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문수의 정신을 본받는 선원을 만들고자 이름을 청량선원이라고 하였다. 상원사가 보천과 효명이 문수보살에게 차 공양을 올린 곳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내일의 푸른 선승이 이곳 청량선원에서 나오는 것도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자현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월정사 교무국장, 조계종 교육이사리, 불교신문 논설위원, 울산 연평선원 원장, 월정사 부산포교원 원장,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부 교수 등을 맡고 있다. 율장, 건축, 선불교, 한국 고대사 연구로 4개의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학진 등재지에 120여 편의 논문을 수록했고, 30여 권의 저서를 펴냈다.



제1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오대산 전국 디지털 사진 공모전

- 주제** 오대산의 길
길 없는 길, 길에서 나를 만나다
- 기간** 2019년 5월 5일(일) ~ 9월 9일(월)
- 장소** 오대산 (선재길, 전나무 숲길, 암자 길 등)
- 참가 자격** 제한 없음
- 출품수** 1인 3점까지
- 출품 규격** 500만 화소 이상 파일 형태(JPEG, BMP, GIF, PNG, 인터넷으로 제출), 스마트폰 촬영 사진 가능
- 사진 등록** 웹하드(www.webhard.co.kr)
ID : woljeongsa2 / password : 2019
- 참가비** 없음
- 접수 마감** 2019년 9월 9일 월요일
- 입상작 발표** 2019년 9월 30일 월요일
강원도민일보 지상 및 홈페이지(www.kado.net)
월정사 홈페이지(www.woljeong.org)
- 시상 내역** 대상 - 상장 및 상금 200만원
금상 -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은상 - 상장 및 상금 50만원
동상 - 상장 및 상금 30만원
입선 - 상장 및 기념품
- 문의** 월정사 (☎ 033-339-6800)
강원도민일보사 사진부 및 평창지사
(☎ 033-260-9280~3, 033-332-3388)



동심童心으로 걸으렴

선재길 ①

정진희

출가出家!

막연하고 아득한,

나와는 인연因緣이 없을 것 같은 삶의 방식,

고요한 산사에서의 수행修行은

나와는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호흡을 고르게 하고 다시 생각해 볼까요?

.....

.....

.....

지금 숨 가쁘게 달려오던 일상을 멈추고

쉼(休)이 간절히 필요한 순간이라면,

혹은 뒤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지혜知慧를 얻고 싶다면,

월정사 출가학교의 문을 열어 보세요.

나의 등불(自燈明)을 스스로 환하게 밝히고 떠나는 인생 여정에

든든한 길잡이(法燈明)가 되어줄 것입니다.

제6기

청년마음

출가학교

- 수행 기간 2019년 7월 31일 ~ 8월 6일
- 합격 발표 출가학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연락
- 입학 대상 15세 ~ 35세, 30명(대중생활에 지장이 없는 분)
- 참가 신청 월정사 출가학교 홈페이지
- 참가 문의 월정사 출가학교 담당자 033. 339. 6777

월정사에서 상원사로 향하는 20리 옛길 - 선재길

월정사 절마당으로 뛰어 들어가 불유각에서 약수를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불교수행관 쪽에서 불어온 바람 한 줄기가 숨~! 제 이마의 땀을 식혀줬죠.

어른들 말로는 여름이 옛날보다 더 많이 더워졌다는데, 저는 아직 많이 안 살아봐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게다가 오대산에만 들어오면 나무 그늘도 많고, 시원한 오대천 흐르는 소리도 들리고, 중대사자암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땀을 식혀주니까 더운 줄 모르겠거든요!

제가 전나무 숲길에서 다람쥐하고 노는 동안 엄마 아빠가 벌써 저~ 만큼 앞서가고 계시네요!

오늘 저희 가족은 여름이 되었으니 선재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불교수행관 쪽으로 나 있는 표지판을 따라 선재길로 접어들었어요. 전





나무 숲길과는 또 다른 길이 펼쳐져요. 미세먼지도 밀어내는 시원한 바람에 파아란 맑은 하늘이 나뭇가지들 사이로 보이고, 전나무, 느릅나무, 자작나무, 피나무, 졸참나무, 잣

나무, 함박꽃나무, 까치박달나무, 계수나무... 와~ 나무 이름들도 참 다양해요.

“일주문, 전나무 숲, 월정사, 부도 밭, 회사거리, 쉼다리, 영감사(사고사지), 동피골, 상원교, 상원사, 중대사자암, 적멸보궁..”

“호호, 또박또박 잘도 읽는구나, 우리 월명이!”

“오대산 할머니!”

“선재길은 이십 리 남짓한 길이란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순례길이지.”

“그렇구나! 그런데 할머니, 이십 리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8킬로미터 정도 되는 건데.. 선재길은 10킬로미터 정도 되지.”

“네? 너무 먼 것 아니에요? 언제 다 걸어요?”

“호호호, 친구가 있으면 이런 저런 이야기하며 걸을 수 있으니, 금세 도착할 걸?”

“할머니가 친구 해주세요! 옛날이야기 해주시면 되죠!”

“그럼 그럴까?”

“네!”

선재길은 왜 ‘선재길’ 이라고 부를까요?

“할머니, 선재길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선재는 아이 이름이란대.”

“네? 사람 이름이었어요?”

“사람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 선재길이 왜 선재길인지 알려주랴?”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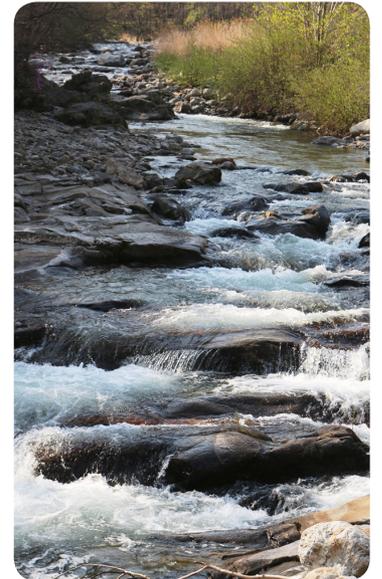
“옛날 옛날에 인도에 복성이라는 땅에 복성장자(福城長者)가 있었단대.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선재(善財)’ 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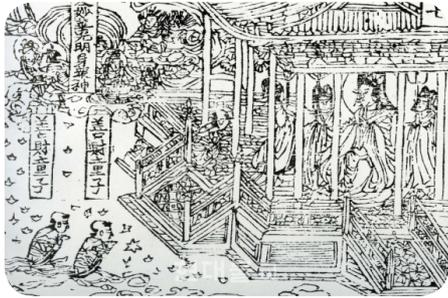
“그래서 이 길 이름이 ‘선재길’인가보네요?”

“그래, 그 선재라는 아이, 선재동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길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선재길이란대. 선재는 어려서부터 지혜로운 스승을 찾고자 했단대. ‘어떻게 하면 진정한 보살이 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다가,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유명한 선지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면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 뿐이다’ 라고 하면서 한 가지씩만 알려주었지. 선지식들은 참 겸손했어. 그런데 선재는 그것만으로는 깨달질 못하겠어서 또 길을 떠나고, 또 누군가를 만나고.. 하며 53명의 선지식을 만나게 된단대.”

“와~ 대단하네요. 직접 인생의 선생님을 찾아서 여행을 다닌 거예요?”

“맞아요. 참 용기 있지?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선재가 여행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몸을 파는 가난한 창녀도 있었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있었단대. 뱃사공도 있었고, 아름다운 여인도 있었고, 노인, 스님, 어린 아이, 땅의 신, 밤의 신, 허공의 신도 있었지. 물론 거룩한 보살도 계셨다고 하는구나. 선재가 살던 시대에는 신분의 높고 낮음도 있었고, 여자는 하찮게 여기





화엄경 입법계품 변상판본
고려시대(선재동자가 선지식 마야부인을 친견하는 모습)

는 문화도 있었지만 선재는 누구하나 가벼이 여기지 않았단다. 그렇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여행하며 만난 이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지.”

“어떻게요?”

“그 여행은 수십년이 걸렸단다. 선지식들은 선재동자의 손을

잡고 자기가 깨달은 곳으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들어가기도 하고, 생사의 기로 속에 선재동자를 밀어넣기도 했단다. 어떤 때는 꼭 안아주기도 했고, 못알아듣는 것 같으면 설법을 해주기도 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모든 곳에 내가 배울 수 있는 스승이 있다고 생각했다는구나.”

“선재동자가 아홉 번째 만난 비목선인(毗目仙人) 이야기는 아주 재밌단다. 길을 걸어가다보니 사슴가죽을 뒤집어 쓰고 땅바닥에 앉아있는 거지같은 사람이 있더라. 사실은 보살이 되기 직전의 사람이었지. 그러니 지혜로운 눈이 있어 선재동자를 알아보고는 ‘너는 기필코 중생을 모두 구하고 모든 괴로움을 없앨 것이다’ 라고 칭찬을 했단다. 그래서 선재가 물었지. ‘당신의 경지는 어떤 경지입니까?’ 그랬더니 비목선인이 선재의 머리를 만지더니 갑자기 손을 덥석 잡아채고 순간 무아지경의 블랙홀 같은 곳으로 빠져들어 갔단다.”

“재밌었겠다!”

“아이고, 선재동자는 너무나 놀랐단다. 자기 몸이 순간적으로 10불찰미진수 부처님 처소에 가있었던 게야! 그런데 손을 잡는 순간 또 선재동자의 몸이 수천 개의 불이 되어 버리더니 사방으로 분산되더라. 겁이 나고 놀라는 순간, 비목선인이 선재동자의 손을 놓았지. 그 순간 선재동자의

몸이 다시 본래대로 돌아와 있더라는구나.

그렇게 선재동자는 수십년동안 긴 순례를 하면서 한 발씩 깨달음의 경지에 다가갔고, 보살이 되고 싶다는 소원이 성취되면서 몸을 자유자재로 부처님의 법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게 됐지.”

“순간이동도 한 거네요? 와~ 아직 21세기에 못 이룬 일이 깨달으면 되나봐요!”

선재동자가 문수보살을 두 번 만난 이유

- 문수보살이 계신 상원사까지 이어진 선재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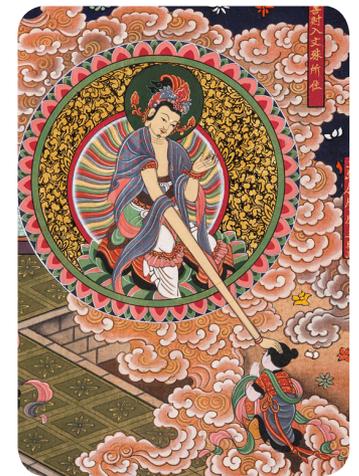
“선재동자가 가장 처음 만난 선지식은 문수보살이었던단다. 그런데 53번째 마지막으로 만난 선지식도 문수보살이셨지. 같은 문수보살을 만났지만 처음 길을 떠날 때와 여행의 끝에 만난 문수보살은 천지차이였단다. 여행을 하는 동안 선재동자는 그렇게 원했던 ‘반야지혜’를 얻게 됐는데, 마지막에 문수보살은 선재동자를 ‘보현행’의 도량에 들어가게 하고 사라지신단다. 보현보살의 행과 원의 바다 속으로 숙~ 들어가게 되면서 또 다른 여행이 시작되는거야. 마치, 이 선재길이 끝나더라도 오대산의 길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길로 이어지는 것처럼 말이지.”

“와~ 선재동자 이야기 더 알게 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선재동자의 그 여행 과정은 『화엄경』에 적혀있단다.”

“그래서 이 길이 선재동자의 이름을 따서 ‘선재길’이었구나~”

“맞아요. 선재길은 월명이 너처럼 아이



화엄경의 문수보살이
선재동자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

같은 마음으로 걷는 길이지. 어쩌면 걸으면서 아이 같은 마음이 되는 길이기도 하겠지. 그렇게 천년 넘는 시간동안 수많은 구도자들이 이 길 위에 수많은 마음들을 내려놓고 갔단다.”

“아~ 그래서 이 길이 예쁜가봐요.”

“호호, 그런가?”

“할머니, 선재길에 얽힌 또 다른 이야기도 해주세요!”

출처

- 현대불교, 강소연 중앙승가대 교수, 「向上一路의 선재동자 구도 여정」 2017.4.20.
- 오대산항기, 자연스님, 「오대산 둘러보기_선재동자와 선재길」 2018.12월호, p9~12
- pup.chosun.com, 「오대산 선재길...천년고찰 월정사와 상원사 잇는 깨달음의 숲길」 2018.2.22.
- 강원도민일보, 「[오대산 선재길] '물음표'로 시작해 '느낌표'로 끝나는 길」 2018.5.3.

정진회 대학에서 문예창작학을 전공하고, 19년째 방송작가로 일하고 있다. <KBS 다큐공감> <KBS 체인지업 도시탈출> <EBS 요리비전> <EBS 하나뿐인 지구> 등에서 일했고, 책 <대한민국 동네빵집의 비밀> 을 출간하기도 했다. 사람 이야기와 음식에 관심이 많은 불자로 중대사자암 삼보일배에 참가하면서 오대산과 인연이 닿았다.



토요 가행정진 법회 양력 초하루법회

법회 일자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저녁 6시

법회 장소 오대산 중대 사자암/적멸보궁

차량 운행·인솔자

[서울] 수다나해 청해림 010-2056-5508
조계사 11:30, 봉은사 12:00, 죽전 13:00

[부산] 소다나해 수연행 010-3851-1064, 명륜동 지하철역 08:00
금강정진회 사무실 051-635-7878, 인솔자 차철표 010-2300-7878
부산진역 6시, 교대 8번 출구 6시 30분, 만덕육교묘 6시 40분

적멸보궁 초하루 법회

법회 일자 매월 음력 초하루 오전 9시

법회 장소 오대산 중대 사자암/적멸보궁

차량 운행·인솔자

[서울·경기] 한불회(서울) 청아연 010. 2299. 4296
청량회(분당, 용인수지, 수원) 자연향 010. 5357. 1370
마야회(분당, 수지, 죽전) 지혜행 010. 5272. 8771

[강릉] 강릉신도회 010. 2057. 9748, 택시부 광장 07시
* 운행시간이나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팀장님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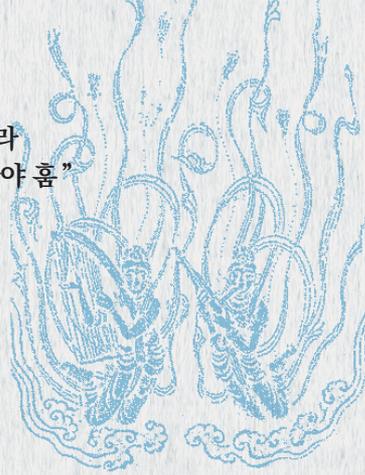
부처님의 지혜 살아 숨쉬는 오대성지 중대사자암 적멸보궁

중대사자암 종무소 T. 033. 333. 0468 F. 033. 332. 7881

25318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1211-80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를타야 훔”



광명정진 철야법회

법회 일자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밤 8시

법회 장소 오대산 상원사

차량 운행·인솔자

[서울] 인솔자_지혜심 010-8776-2552

1호차 조계사 오전 11시 10분, 2호차 봉은사 낮 12시

[안양] 인솔자_사리자 010-4017-7653

안양 선진병원 9시 40분, 범계역 6번 출구 10시

농수산물앞 10시 10분, 죽전고속도로경유정거장

(1호차) 안양 선진병원 8시 40분

(2호차) 광명 시민체육관앞 8시 20분 - 범계역 6번출구 9시 /

농수산물앞 9시 10분 / 죽전고속도로 경유정거장 9시 30분

[대구] 인솔자_보련화 010. 3827. 5769, 동아쇼핑 앞 오전 9시

[창원·함안] 인솔자_법성화 010. 7317. 2351

창원 불곡사 5시 30분, 창원역 6시, 함안군 칠원읍 6시 30분

[부산] 대경 관음회 인솔자_청련화 010. 8266. 0012

1, 2, 3호차 범일동 국민은행 앞 오전 6시 30분

그린광명회 인솔자_항상장 010. 8557. 3574, 4호차 부산시청 6시 30분

[수원] 인솔자_대지행 이하윤 010-8712-1086

병점역 7시 출발, 수원역 7시 10분, 북문(장안문) 7시 20분

KT(동수원) 7시 30분, 영통입구 7시 40분

[강릉] 인솔자_다람보살님 010-6371-6133

주지 해랑스님과 1000일 동안 함께 하는 **금강경 독송**

일시. 매일 12시 30분 ~ 13시 30분 (초하루와 문수재일에는 법회에서 독송)

장소. 상원사 문수전

25318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1211-14

종무소 033. 332. 6666, 6060 팩스 033. 333. 5833

문수성지 광명도량 오대산 상원사

Odaesan Meditation Village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명상법회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옴뷔OMV는

내가 나의 삶에 선물하는 자유로운 플렉스이며,

명상으로 편안하고 자연의 기운으로 건강해지는

Healing Stay입니다.

숲에서 탄생하여 하늘로 피어오르는 고요한 땅,

사람과 자연이 바람의 빛깔로 모인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에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물든 모든 습관들을 지우고

행복을 담아낼 귀한 인연을 명상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쪽의 맑은 기운을 품은, 숲을 닮은 수행자!

햇빛처럼 빛나는 바로 당신입니다.



입재. 2019년 7월 13일 토요일 15시 회향. 2019년 7월 14일 일요일 12시

장소. 오대산 자연명상마을(OMV)

프로그램. 경청명상, 자애명상, 걷기명상, 치유요가

동참비. 1인 5만원(2인 1실 사용)

문의.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033. 333. 6500 / 월정사 종무소 033. 339. 6800

화엄오만진신 조성 불사 권선문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얻으신 직후, 3·7일 동안 깨침의 정수를 말씀하신 것이 『화엄경』입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이 너무나 위대하고 경지가 높았기 때문에 중생들은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아함경(아가마-阿伽摩: agama)부터 차례로 단계를 높여가며 가르침을 설 해주시게 되는데 마치 현대의 4차 산업을 얘기해 주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교육을 시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신라 선덕여왕 때 국사 급에 해당하는 대국통 자장율사께서는 중국 산서성 오대산에서 642년 문수보살을 친견하셨습니다. 이때 부처님의 사리와 가사 등의 성물(聖物)과 『화엄경』의 가르침을 전수 받은 뒤, 신라의 동북방에도 문수 성지가 있으니 찾으라는 부촉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귀국 후 신라에서 찾아진 곳이 바로 평창의 오대산입니다. 자장율사는 오대산 중대에 부처님의 뇌사리를 봉안하고, 월정사의 기틀을 확립합니다.

이후 태종무열왕 즉 김춘추의 손자인 제31대 신문왕이 즉위하게 되는데, 형제들 간에 왕위 계승과 관련된 다툼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 싫어서 덕이 있는 왕자 보천과 효명 형제는 멀리 오대산으로 은거하여 수행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 이들은 오대산 중대에서 1만 문수보살을 친견하는 이적을 경험합니다. 이후 차례로 동대에서는 1만 관세음보살,

남대에서는 1만 지장보살, 서대에서는 1만 대세지보살, 북대에서는 1만 미륵보살을 빚게 됩니다. 보천과 효명은 이들 보살님께 차 공양을 올리고 일일이 절하며 예배해 모십니다.

이런 과정에서 경주에서는 신문왕의 장남인 효소왕이 실정하여, 재위 10년 만에 폐위되고 새로운 군주를 물색하게 됩니다. 이때 효명의 덕행과 불보살의 가피가 알려져 귀족의 추대로 등극하는데, 이분이 바로 통일신라 최대의 성군으로 평가되는 제33대 성덕대왕입니다. 성덕대왕 하면 아들과 손자가 대왕의 덕을 기려 주조한 성덕대왕신종, 즉 에밀레종으로 유명합니다. 또 성덕대왕의 아들로는 중국불교에서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평가받는 김지장(김교각)과 사천성 정중선파의 시조이자 중국에서 500나한 중 한 분으로 평가되는 정중무상스님이 있습니다.

신라와 불교의 황금기를 구가한 성덕왕은, 경주를 인구 100만의 세계 10대 도시로 성장시키는 놀랄만한 위업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되고 신라가 번영을 구가하는 것이 오대산의 불보살님의 가피라고 생각하여, 재위 23년째가 되는 724년 친히 행차하여 상원사를 창건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오대산과 월정사의 대체(臺體)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대산불교의 발전은 국가를 흥성시키는 동시에, 오대산 5만 불보살님의 존재는 개인의 성공과 행복에 더 없는 공덕과 복덕의 가피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이는 이성계가 오대산 중대 사자암을 자신의 월찰로 삼고, 상원사를 수륙재 사찰로 지정한 것을 통해서 분명해집니다. 『성종실록』 권261의 1492년 기록에는 “오대산과 금강산에 사찰이 매우 많고, 승려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즉 조선 초기까

지도 오대산은 금강산과 더불어 최고의 기도 도량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런 유서 깊은 성지인 오대산 월정사에서, 『화엄경』에 입각한 5만 보살의 모습을 나무로 조각하여 모시는 대불사를 단행합니다. 월정사의 적광전은 『삼국유사』 「오류성증」조에서, 신라 최고의 명당으로 평해진 유일한 장소입니다. 성덕대왕이 발복하고, 『삼국유사』에서 최고의 길지로 평가된 적광전에 모셔지는 5만 불보살님의 조성에 동참하여, 나와 가족의 성공과 행복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눈이 먼 제자 아나율의 가사를 기워주시면서, ‘복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보시로 큰 공덕을 만들어, 다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거친 파도를 이겨내고 반드시 성취되는 가피와 위업을 달성해야만 할 것입니다. 5만 불보살의 위신력과 함께 하면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행복으로 충만할 것이며, 작은 보시도 큰 결실을 맺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 10만원 • 108 설판 동참금(가족) : 500만원 (설판 제자 탕화에 이름을 올려 드립니다.)
회향 법회	2022년 10월
동참 문의	원주실 033. 339. 6600~1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 법회

오대산 월정사에서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래의 대비신력과 위신력을 담은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천수경에 나오는 가장 긴 진언으로, 그 신통묘용은 실로 뛰어납니다. 석가모니부처님 불뇌사리를 봉안한 적멸보궁과 오만불보살님의 진신이 상주하는 오대산에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지성으로 독송하여, 일체의 마장과 장애를 소멸하고 무상보리심을 증득해 불보살님의 가피를 몸소 체득하는 수승한 인연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 법회 일시** 佛記 2563(2019)년 7월 20일 토요일 오후 8시
- 법회 장소** 오대산 월정사 대법륜전
- 법회 문의** 월정사 포교국 033. 339. 6616, 010-2019-5846
- 차량 운행** |1호차| 조계사 : 오후 1시 / 조계사 앞
죽전 : 오후 1시 40분 / 경부고속도로 버스 정류장 앞
|2호차| 신도림역 : 오전 11시 40분 / 2·3번 출구, 테크노마트 앞
잠실역 : 오후 1시 / 4번 출구, 롯데마트 앞

법회 일정	20:00 ~ 21:00	입재, 주지스님 법문
	21:30 ~ 23:30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
	23:30 ~ 00:30	죽 공양 및 휴식
	00:30 ~ 02:00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
	02:20 ~ 04:00	신묘장구대다라니, 축원
	04:30 ~ 05:00	새벽예불, 회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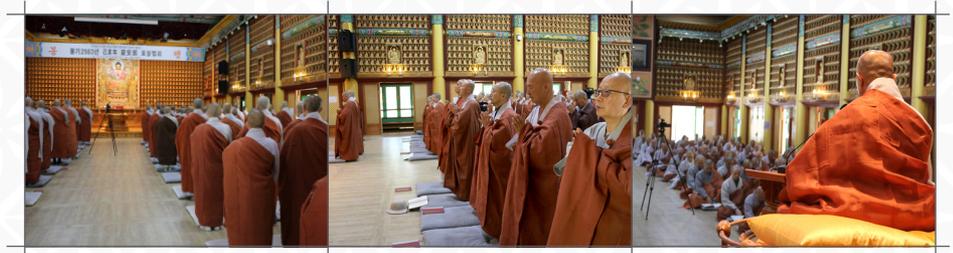
탄허대종사 38주기 추모다례제

佛紀2563(2019)년 5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 월정사 적광전에서 주지 퇴우 정념 스님을 비롯해 법맥을 이어받은 상좌, 손상좌스님들과 교구內 수행정진 중인 선방 스님 등 150여명이 동참하여 탄허대종사 36주기 추모다례제를 봉행하였습니다.



기해년 하안거 포살

佛紀2563년(2019년) 5월 28일(화) 오후 1시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문수성지 월정사에 결계신고를 마친 200여명의 스님들이 참석해 己亥年 하안거 포살 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스님들은 포살을 통하여 계율의 조목을 외우고 부처님 말씀대로 청정한 계행으로 수행자의 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참회하였습니다.



| 힐링플랫폼 음뽀 개원 1주년 프로그램 |

도시탈출은 OMV_{음뽀}에서 호캉스



오대산자연명상마을 음뽀에서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힐링 플랫폼 프로그램 '음뽀에서 호캉스'를 개최합니다.

도시에서의 바쁜 일상과 삶에 지친 현대인들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2박3일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은 숲속에서의 자연명상, 계곡길 걷기명상,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함께 고민을 나누며 해결하는 경청명상, 내 몸을 살리는 치유 체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별빛 샤워, 한강물 발 담그기 등 자연의 정취를 듬뿍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기간** • 2019년 7월 26일 ~ 8월 15일 (총 5회, 2박 3일)
- 참가대상** • 청소년(고등학생), 대학생, 가족 누구나
- 위치** •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 프로그램**
 - 직장인을 위한 "나 홀로 섬" 2회
 -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명상캠프 인싸" 1회
 - 가족이 함께 참가하는 "음뽀 종이 땡땡땡" 2회 (총5회)
- 모집인원** • 30명(프로그램 별 선착순)
- 객실요금**
 - 1인실 : 20만원
 - 2인실 : 24만원 (프로그램 참가비 : 무료)
 - (*2박 3일 기준)

〈 '도시탈출은 음뽀에서 호캉스' 일정표 〉

순차	일정	참가대상	프로그램명	내용
1회	8/2~4	누구나	나홀로 섬	나홀로 생활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명상과 휴식
2회	8/6~8	청소년(고등학생)	명상캠프 '인싸'	청소년들의 인성과 집중력을 향상
3회	8/13~15	가족	음뽀종이 땡땡땡	가족구성원이 가족애를 공감하는 명상과 휴식

〈 세부일정 (2박 3일) 〉

일자	시간	내용
1일차	16:00	체크인
	17:00	오리엔테이션(느린 첫 만남)
	19:00~20:00	치유체조
2일차	07:00~08:00	자연명상
	09:30~11:00	더위사냥(부채만들기 체험)
	11:00~16:00	함께 걸어요(비밀에 정원에서 ♥ 찾기)
	19:00~21:00	별빛 먹기 명상

사증소식

- 6월 7일(금)** 적광전에서 신중재일 화엄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 6월 15일(토)** 대법륜전에서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 6월 22일(토)** 대법륜전에서 오대광명포살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 6월 28일(금)** 적광전에서 기해년 백중기도 입재식을 봉행하였습니다.

진부 시내버스(오대산 월정사, 상원사 방면) 운행시간표

〈월정사, 상원사 방면〉					〈KTX 진부역 방면〉		
진부	월정사	상원사	오대산역	진부	진부	오대산역	진부
7:50	8:10			8:30	8:35	8:55	9:00
9:05		9:50		10:30	10:35	10:45	10:50
10:00		10:45		11:25	13:35	13:40	13:45
11:00		11:45		12:25	14:40	14:50	14:55
11:50		12:35		13:15	16:40	16:50	16:55
13:10		13:50		14:30	17:40	17:50	17:55
15:10		16:00	16:50	16:55	19:00	19:10	19:15
15:50		16:35		17:15			
17:00		17:45		18:25			
17:40		18:25		19:05			

* 진부 시내버스 운행시간이 7월 1일부터 변경 운행되어 알려 드립니다.

* 주소 변경, 배달 사고 등 「오대산향기」에 대한 문의 사항과 특별히 법보시를 하고 싶은 단체, 이웃이 있으시면 오대산 향기 편집실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오대산향기 법보시 안내

- 정기구독 법보시 금액** 1년 회원 : 2만 원 / 10년 회원 : 20만 원
- 정기구독 법보시 신청** 월간 오대산 향기 편집실
전화. 033) 339-6800 / Fax. 033) 332-6915
(우)25318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월정사 중무소
홈페이지. <http://www.woljeongsa.org>
- 법보시 신청 계좌번호** 농협 355-0019-0684-13 (예금주 : 월정사)
- 법보시 동참 불자님** 5년 회원 : 전영창님
1년 회원 : 이치호, 김덕희, 진인환, 박화자님

7월

佛紀 2563(2019)년

오대산 월정사 주요행사

오대산 적멸보궁 | ☎ 033. 333. 0468

7월 3일(수) 초하루법회

월정사 | ☎ 033. 339. 6600

7월 4일(목) 백중기도 초재(적광전)

7월 7일(일) 신중재일 화엄법회

7월 11일(목) 백중기도 2재(수광전)

7월 18일(목) 백중기도 3재(수광전)

7월 20일(토)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법회(대법륜전)

7월 25일(목) 백중기도 4재(수광전)

7월 26일(금) 직장인을 위한 여름수련법회(~7/28)

7월 27일(토) 오대광명 포살법회(대법륜전)

7월 28일(금) 백중기도 입재

7월 31일(수) 6기 청년마음출가학교(~8/6)

상원사 | ☎ 033. 332. 6666

7월 3일(수) 초하루법회

7월 6일(토) 문수재일 지혜법회

7월 27일(토) 광명정진 철야법회

중대사자암 | ☎ 033. 333. 4729

7월 2일(화) 하안거 무장무애기도 회향

7월 6일(토) 토요일행정진법회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OMV | ☎ 033. 333. 6500

7월 13일(토) 명상법회(동림선원)

7월 20일(토) 함께 걸어요



매월 음력 5일, 신중재일 화엄법회에 참석합시다

일 시 | 佛紀 2563(2019)년 7월 7일(일) 오전 9시 30분

장 소 | 월정사 적광전

기도비 | 30,000원

문의 | 원주실 (033) 339 - 6600 ~ 1

오대산 월정사 여/름/수/련/회



직장인을 위한 7월 26일 ~ 28일

1차 8월 2일 ~ 4일

2차 8월 9일 ~ 11일

3차 8월 16일 ~ 18일



템플스테이 문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번지

T. 033-339-6606~7 <http://woljeongsa.org/templestay>